

이상미에 따른 여성 속옷 구성에 관한 연구(1)

- 20세기 전기를 중심으로 -

김 지 연* · 전 혜 정**

한양여대 패션디자인과 겸임교수* · 서울여대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Women's Underwear Structures by Ideal Beauty

- Focused on the Former Period of 20th Century -

Jee-Yeon Kim* · Hei-Cung Chun**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Han-Yang Women's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Women's University**

(2003. 3. 12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ly to survey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20th century and women's status, and to identify what the ideal body is like and what the elements of outer garment and underwear are and the techniques to incarnate the ideal beauty. Various papers are referenced for theoretical study and the elements and techniques of underwear are analyzed based on photographical material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s.

In 1910's, ideal beauty has changed to H-style. In other words, the outer garment has confined the lower part of the body with plain H-type Hobble silhouette to express plump bust, somewhat slim waist, and small hips. As the underwears, cylindrical corsets which fasten from under the bust down to lap, brassière which are helpful for plump bust, and artificial busts were worn.

In 1920's, outer garment were Straight box silhouette style which were cut as tubular without dart, and the underwears were corselets which have been tubular from the bust to hip and the tubular chemi-knickers. The former corsets which had been hard-boned and been fastened with strings have been replaced by the hook closure due to the development of elastic joining method.

In 1930's, women pursued perfect body showing the line of bust, waist, and hip. In order to express elegant beauty of female of Slim and long silhouette, outer and underwear have been cut with bias and gore, and soft and flexible materials were flowed along the body.

World war II in 1940's has made the women as social. Ideal beauty has changed to Short straight box silhouette which no more shows body line. Outer and underwears were simple and practical style.

In 1950's, ideal beauty was well-matured, elegant women which were represented by round shoulder.

conical breast, tiny waist and round hip. Outer garment showed Hourglass silhouette representing the body-tight suits with round shoulder pad and the wide flare skirts. As the underwears, conical brassière by top circular stitch were preferred for plump and bulged bust and tight corsets for tiny waist and magnificent petticoats were worn.

Key Words : ideal of beauty(이상미), outer garment(겉옷), underwear(속옷), corset(코르셋), brassière(브래지어)

I. 서론

인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문화의 시각적 표현의 하나로서, 사회적 통제를 받으며 문화적 이상형으로 변형되는 경향을 갖는다. 문화적 이상을 표현한 이상미(理想美)는 일정한 시기에 그 사회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일치성을 나타내며, 그 시기의 스타일, 취향, 도덕성, 태도 등을 반영한다.

Merleau-Ponty의 일원론에 의하면, 인체는 단순한 육체(flesh)가 아니라 정신과 육체가 합쳐진 결과이다. 따라서 모든 문화에서 여성 인체의 이상은 그 문화가 바라는 여성의 정체감을 표현하는 외형과 의미를 다양한 인공물을 통해 창조해왔으며, 이것은 인체적인 변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왔다.¹⁾

복식(clothing)은 자신을 표현하는 육체의 의복인 동시에 정신의 의복이며, 한 시대의 양식을 나타내는 문화적인 총 집합체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문화적 산물인 인간(여성)은 어느 특정 시기에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여성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복식을 착용한 형태로서 이상미를 표현해왔다.

즉, 그 시대의 이상적인 문화(미적가치), 이상적인 인체미, 이상적인 복식미가 합쳐진 이상미를 만들기 위해, 코르셋과 크리놀린으로부터 브래지어, 거들, 바디빌딩, 성형 수술에 이르기까지, 인체는 이상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형되어왔고 복식은 각 시대와 문화에 따른 유행스타일로 창조되어왔다.

여성의 이상미를 이루기 위한 복식 연구는 겉옷

뿐만 아니라 그 근본을 이루는 속옷의 역할을 이해함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완벽한 복식이란 속옷과 겉옷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며, 속옷의 기능 중 인체를 교정하고 변형하는 것은 이상미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속옷에 관한 국외 연구로 Riley는 인체 구성의 변화는 복식의 재단, 코르세트리와 같은 고안물, 이상적으로 가정된 자세를 통해 성취되어 왔음을 지적하였으며,²⁾ Thesander는 시대에 따른 이상적인 여성 인체와 이를 형성한 요소를 속옷과 겉옷을 함께 고찰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속옷의 겉옷화 현상(변소영, 2000; 최원, 1995)과 속옷의 변천사적 연구(오경숙, 1985; 이순자, 2000; 이순홍, 2000; 이인자, 1986), 속옷 광고의 의미 연구(김미영, 2000) 등이 있다. 속옷이 복식의 이상미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의 많은 연구는 겉옷에 치중되어 왔으며, 속옷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적 변천이나 종류의 나열에 그쳐 속옷의 구성요소 및 기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미에 따른 속옷의 구성요소(형태, 소재, 색상, 패턴 등) 및 기법을 제시하여 속옷에 관한 근본적인 이론의 초석을 다지고 업계와 학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에, 20세기 전기를 십년 단위별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여성의 지위 등을 살펴보고,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한 이상적인 인체미와 겉옷의 양식과 속옷의 구성요소 및 기법 등을 규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각종 문헌 자료, 사진 자료 등에 근거하여 구성요소와 기법을 중심으로

로 속옷을 분석한다. 연구 범위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이에 따른 이상미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모더니즘의 시작이라 사료되는³⁾ 20세기 중 전기를 살펴 볼 것이며, 속옷의 분류 방법들 중 Koichi Tsukamoto의 분류⁴⁾방법 중 인체 형태를 재구성하여 교정(reform)하는 코르세트리(corsetry)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상미(Ideal of Beauty)

본 장에서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른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고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한 이상적인 인체미와 이상적인 걸음의 양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910년대(1908-1919)

20세기에 들어설 때만해도 여성들은 일부 지역에서 제한된 투표권만 있었으며, 교육이나 직업 등 법과 사회적 태도에서 차별받았다. 1907년 시작된 기능주의는 합리성과 기능성을 추구하여 복식에도 합리적인 모던 스타일이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아르데코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형태로 복식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의 급변한 여성복의 원인으로 러시아 발레단의 영향, Paul Poiret의 디자인 영향, 오리엔탈리즘, Leon Bakst의 의상디자인에 의한 가극 공연,⁵⁾ 여성 해방 운동, 스포츠의 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여성들 스스로 진보되어 있었고, 디자이너들도 그에 적합한 디자인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상적인 인체미는 다음과 같다. 어깨는 좁고 가슴은 부드럽게 부풀었으며, 허리는 이전에 비해 심하게 조이지 않았지만 다소 강조되었다. 힙은 더 강하게 조였으며 스커트 폭이 너무 좁아 다리가 하나인 것처럼 보였다.⁶⁾⁷⁾⁸⁾

대표적인 스타일은 가슴에는 자유를 주고 다리는 구속한 극단적인 형태인 H형으로, 호블 실루엣(Hobble silhouette), 원통형 실루엣(Tubular silhouette)이다[그림 1-1].

이러한 스타일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1차 세계 대전으로, 전근대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과 지나치게 장식적인 복식으로부터의 탈피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들에게 경제권의 부여라는 중요한 의미가 주어졌다.

2. 1920년대

1920년대에는 새로운 도덕의 자유, 여성의 해방, 젊음 등으로 상징된다. 아르데코와 기능주의는 더욱 성숙단계에 들어섰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해 복식은 합리성과 기능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졌다 해도 많은 여성들은 가사일을 해야 했고, 그들은 지루한 가사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의 머리를 자르고 담배를 피우고 바지를 착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하였으며, 특히, 플래퍼라는 젊은 여성들은 모호한 섹슈얼리티의 헐렁한 보이쉬 스타일 혹은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른 이상적인 인체미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모습은 양성적으로, 짧은 머리, 가슴, 허리, 힙의 곡선이 사라진 인체를 매력적으로 보았다. 이상적인 여성 인체의 가슴-허리-힙에 관한 통계치는 30"-30"-30"이었을 것이며,⁹⁾ 이상적인 인체는 성적(性的)으로 정의 내려질 수 없었기 때문에 얼굴과 다리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포인트는 다리로 옮겨갔다.

대표적인 스타일은 스트레이트 박스(Straight box) 스타일이다. 이것은 짧고 직선적인 소매, 허리선이 내려간 직선적인 라인의 헐렁한 드레스이다[그림2-1]. 패턴 구성 방법을 보면, 인체를 무시하고 다투가 전혀 없이 직선으로 된 것을 볼 수 있다.¹⁰⁾ 1920년대 후반기에는 기본적인 스타일은 보이쉬 스타일이지만 여성스러움을 되찾은 소녀같은 모습의 가르손느 스타일을 하였다.

3. 1930년대

1929년의 세계경제공황으로 인해, 1930년대는

대공황, 실업, 높은 세금과 임금 인하, 파시즘이 지배하였다. 자본국가들은 경제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수산업에 주력하였고, 보수적이고 복고적인 가치는 이 시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 실업으로 기혼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보내고 대신 그 자리를 남편에게 주는 것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언론이나 잡지는 직업 여성들에게 더 여성적인 태도를 주입시켰으며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권장하였다.¹¹⁾ 여성들은 결혼이 최고의 목표였고, 잡지는 '주부'로서의 역할에 대해 묘사하였으며, 여성들이 젊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도록 조장하였다.¹²⁾

이상과 같은 배경하에서 이상적인 인체미는 다음과 같다[그림 3-1]. 키는 크고 어깨는 약간 넓고 허리선은 자연스러운 위치에 놓여졌으며 가슴과 힙의 곡선이 다시 나타나 부드럽게 강조되었다. 힙은 다시 나타났지만, 이전의 풍만함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좁고 날씬한 남성적인 엉덩이였으며,¹³⁾ 성숙하지만 전 시대의 가늘은 소녀 모습이 남아있었다.

대표적인 스타일은 인체의 곡선이 드러나는 날씬한 윤곽선의 홀쭉하고 긴 슬림 앤 롱 실루엣(Slim & Long silhouette)이다. 이를 위해, 바이어스로 재단된 드레스들은 인체에 감각적으로 밀착되어 가슴, 허리, 힙의 곡선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성적인 포인트는 수동적인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등으로 옮겨갔으며, 이브닝 드레스의 경우 등으로부터 허리까지 노출하였고, 일상복에서조차 등에 절개선을 넣었다.

4. 1940년대

제 2차 세계대전은 제 1차 세계 대전보다 더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과 동양의 많은 나라들은 폐허가 되었다. 음식과 생필품이 부족하여 처음으로 엄격하게 배급제가 실시되었으며, 생필품이 아닌 품목의 생산이 금지되고 재료와 노동력이 군사용품 생산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2차 세계 대전 동안 여성의 노동력이 다시 필요해졌고 여성들은 남성들이 종사했던 많은 직업을 물려받았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전이 주로 미혼, 하류계급 여성 고용이 증가한 반면, 2차 세계대전은 기혼, 중류계급 여성들의 고용과 평등한 월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이상미는 다음과 같다. 전쟁의 엄격한 제제가 재료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짧은 박스 실루엣(Short boxy silhouette)이 유행하였다. 매우 넓은 남성적인 어깨의 경향은 여성들이 전쟁에 동참함으로써 부과된 책임감을 상징하였으며, 이상미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인체 형태로 약간 둥근 가슴과 긴 다리의 자신에 차고 활동적인 유형의 여성으로 대체되었다[그림 4-1].

대표적인 복식은 짧은 박스 실루엣인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이다. 넓고 각진 패드 덴 어깨, 약간 들어간 허리의 자켓, 무릎까지 오는 짧은 스커트의 테일러드 수트 스타일인 밀리터리 룩은 완전히 실용적인 기능복이 되었다.

5. 1950년대(1947-1959)

전후 재건은 무역과 산업의 확장과 발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세계 경제는 호황의 전조를 나타내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일어났고, 과학의 발전은 섬유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각종 혼방과 가공으로 많은 소재가 개발되었다. 긴 기간 넓은 범위의 2차 세계 대전 후에 제제와 박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은 여흥(entertainment)의 형태로 나타났고, 전쟁 후의 경제적 호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정적 가치는 보수적으로 회귀하여 여성들이 주부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압박하여 여성들은 1차 세계대전 후처럼 남성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가정으로 돌아갔다.¹⁴⁾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이상적인 인체미는 다음과 같다. 둥근 어깨, 풍부한 원추형의 가슴, 잘록한 허리, 편평한 복부, 둥근 힙의 곡선적인 라인이 강조되었다. 머리는 길거나 짧으며 웨이브진 단정한 스타일로, 여성들은 우아하고 성숙하며 완벽한 모습을 취하였다. 큰 가슴과 가슴골은 여성의 성적

매력의 상징이 되었고, 받쳐진 가슴선, 가슴 사이즈와 형은 1950년대 실루엣에 결정적이었다.

대표적인 실루엣은 패드를 대어 등글게 한 좁은 어깨, 명확한 가슴선, 제 허리선의 잘록한 허리와 길고 풍성한 스커트의 뉴 룩(New look) 스타일과 직선적인 쉬스 드레스(Sheath dress) 스타일이며,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실루엣은 아우워 클래스형이다[그림 5-1].

Ⅲ. 속옷의 구성요소 및 기법

1. 속옷의 정의 및 기능

19세기 중반 이전의 여성의 속옷(underlinen & underwear)은 언더클로스(underclothes) 혹은 언더가먼트(undergarments)라 불렸다. 후에 이러한 의복은 프랑스 단어 linen, linen draper, 혹은 '헐렁하게 맞는 옷'의 "lin"으로부터 나와 란제리(lingerie)로 알려졌다.¹⁵⁾ 즉, 이 란제리는 프랑스어로 여성 속옷의 총칭을 뜻하지만, 원래는 린넨(linen)제품이라는 의미였다.¹⁶⁾

언더웨어(underwear)에 대한 정의는 복식 사전에서는 속옷의 총칭으로 아우터웨어에 대해 가장 속에 착용하는 의상 전반을 가리킨다.¹⁷⁾ 그러나,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하에 디자인과 기능적인 면에서 두 영역이 붕괴되어, 겉옷안에서 입혀지는 의복만이 속옷이 아니라 속옷이면서 겉옷으로 입혀지는 의복까지 속옷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즉, 오늘날 란제리는 프릴이 달리고 자수가 놓인 레이스 캐미솔에서부터 스포츠 브래지어까지 혹은 겉옷으로서 속옷까지 포함한다.¹⁸⁾

Cunnington은 속옷의 기능을 추위로부터 인체 보호, 의복의 형태 지지, 청결 유지, 성적 표현, 계급 차별의 방법으로 보았다.¹⁹⁾ 오늘날은 겉옷으로서의 역할도 하므로 겉옷아래서 의복의 형태 지지 이외에 인체의 형태 지지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체성, 심미성, 커뮤니케이션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2 속옷의 구성요소 및 기법

1) 1910년대

1차 세계 대전 전 여러 해동안 속옷의 소재와 개념은 점차 현대적으로 바뀌었지만, 많은 부분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남아있었다. 이 시기에는 의복의 수를 줄이기 위해 콤비네이션이라는 상·하의가 붙은 새로운 속옷이 생겼으며, 세탁 견뢰도가 우수한 염색법의 개발은 세탁에 탈색되지 않는 선명한 색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스포츠의 발달은 인체의 움직임을 구속하지 않는 신축성 있는 니트(편성물)인 저지(jersey)나 고무 섬유인 엘라스틱(elastic = elasticized fabrics)을 필요로 하였으며,²⁰⁾ 이 엘라스틱은 고무(rubber)가 핸드니팅기계에서 거칠고 짧은 길이(2"정도)로 견고한 실과 함께 짜여 부분적으로 신축성을 주었다.²¹⁾

① 코르셋

1908년경부터 힙의 곡선이 감소되어 인체의 곡선은 거의 사라지고 코르셋은 직선형으로 되기 시작했다. 긴 원통형(tubular)의 코르셋으로 모든 커브가 은폐되었으나, 코르셋 위로 가슴의 곡선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전시대의 심한 S커브형에서 벗어나 여성들은 처음으로 똑바로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무릎까지 오는 긴 코르셋을 입고 앉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²²⁾

"The Corset Makes Figures(1912)"라는 제목 아래,²³⁾ 이상적인 인체미를 만들기 위한 코르셋의 대표적인 형태는 직선의 원통형으로, 전 시대의 가슴을 덮던 높이에서 내려와 가슴 아래부터 시작되어 거의 무릎까지 내려왔다(옆길이 18"-22"). 이중 버스크(busk)²⁴⁾로 앞중심에서 똑바로 눌러주고 복부를 압박하였으며, 조절의 초점은 더 이상 허리가 아니라 힙으로,²⁵⁾ 날씬한 힙과 복부를 만들기 위해 복부에 조절 가능한 밴드를 달아 치수를 줄였다[그림 1-2, 左]. 이 앞면이 직선으로 된 코르셋(Straight-fronted corset)은 뒤에서 졸라매고 앞에서 버스크로 여몄으며, 4-6개의 단단한 서스펜더(suspender)는 무릎 위에서 스타킹을 고정시켰다. 신축성 있는 서스펜더는 코르셋 디자인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

분이었다. 이중으로 복부를 지지하기 위한 복부 벨트는 복부 아래에 선택적으로 보강되었으며, 가슴 부위는 레이스로 장식되어지고 리본을 매었다[그림 1-2].

이 시기의 코르셋 바디스 소재는 마섬유나 면섬유로 제작된 꾸땀(coutil), 드릴(drill), 면 새틴(steen), 진(jean), 바티스트(batiste) 등이 쓰였으며, 견섬유인 브로케이드, 브로셰(broché), 새틴이 쓰였다. 움직임의 요구에 따른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트리코트, 저지 등의 편성물과 부분적으로 엘라스틱 소재가 사용되었다. 이 엘라스틱 삽입물(elastic inserts)을 코르셋에 부분적으로 넣는 것은 초기의 니트로 된 거셋을 삽입하는 것과 그 목적이 같다. 엘라스틱은 고무를 얻는 기술의 한계로 2"정도 길이만 가능하여 밴드, 고어, 혹은 거셋의 형태로 작게 대어졌다. 엘라스틱은 힙, 복부, 밑단 등에서 착용자가 앉거나 걸을 때, 움직일 때 편안함을 주었으며, 가슴에 거셋의 형태로 들어간 것은 호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복부에 밴드를 댈 경우 밴드 안쪽에 엘라스틱을 대어 불편없이 이중으로 압박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2].

앞 혹은 뒤에서 졸라매는 코르셋에 뼈대를 대는 것이 중요하며, 뼈대는 주로 이중으로 대어졌다. 이 시기에 단단한 고무나 셀룰로이드로 덮힌 녹슬지 않는 금속뼈대가 소개되어 고래수염 뼈대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²⁶⁾ 전쟁 동안은 비싸지 않으며 고래뼈대를 대신할 수 있는 wabone이나 알루미늄 철사가 주로 쓰였으며 이 뼈대들은 녹슬거나 부러지지 않았다.²⁷⁾²⁸⁾

전 시대처럼 코르셋의 종류는 다양했으며, 주문 방법은 실제 치수보다 3"적게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허리가 23"이면, 사이즈 20"를 주문해서 졸라매도록 했다. 성장기의 소녀들은 2"적게 하도록 하였다. 코르셋의 색상은 전쟁 전에는 거의 흰색이 쓰였으나, 전쟁 동안에는 핑크색도 많이 쓰였다. 이외에도 하늘색, 회색, 검정색이 쓰였다.

이 외에도 1910년대 초에는 가슴을 풍만하게 보이기 위해 인공 가슴이나 브래지어 형의 러플을 코르셋 안쪽 가슴부위에 대었다. 이것은 세탁시 탈착

할 수 있었고 세탁가능한 머슬린, 얇은 무명(nainsook) 등을 사용하였다[그림 1-3].

1914년 세계 1차 대전 이후, 스커트가 짧아짐에 따라 코르셋도 점점 짧아지고 유연해져 거들로 대체되어갔다[그림 2-4]. 코르셋은 허리를 조여줄 뿐 아니라 가슴을 받쳐 주었으나, 거들은 가슴을 받쳐 주는 것이 불가능해 새로운 부속물인 브래지어가 필요하게 되었다.²⁹⁾

② 브래지어

브래지어는 1912년의 옥스퍼드 사전에 소개되어 기록되었지만, Vogue 일러스트레이션에는 이미 1907년에 나타났다. 브래지어는 과거의 캐미솔(camisole: 코르셋 커버)을 대신하여 1916년 나타났다³⁰⁾는 의견과 초기의 바스트 바디스³¹⁾를 대체한다³²⁾는 의견이 있으며, 현재의 브래지어는 1913년 나타났다.

코르셋의 형태 변화와 함께 브래지어가 출현했다. 즉, 가슴 아래로 내려간 코르셋 때문에 가슴을 덮어 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이 시기 브래지어는 캐미솔이나 바스트 바디스같이 짧아진 코르셋 위로 가슴을 덮어 인체의 외곽선을 유연하게 보이고 가슴을 풍만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림 1-4]는 1915년 경 쓰인 브래지어이다. 블록하게 가슴이 나와 하나의 가슴을 표현하며, 뼈대를 대었다. 형태는 브래지어라기 보다는 바스트 바디스와 유사하며 레이스나 프릴과 같은 장식적인 요소가 남아있다. 소재는 코르셋과 마찬가지로 면이나 실크류가 주로 쓰였고, 뼈대는 얇게 대거나 안대는 경우도 있었다. 신축성을 위한 엘라스틱은 부분적으로 짧게 대어졌다. 브래지어의 광고는 가슴둘레 32", 34" 등의 치수를 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전의 대, 중, 소로 나뉘던 치수에 비하면 보다 다양해진 치수제안이었다. 색상은 주로 흰색이 쓰였다.

현재의 브래지어는 1913년 미국의 Mary Phelps Jacob(후에 Crosby로 더 잘 알려짐)이 최초로 디자인하였다. 이전까지는 가슴사이를 나누는 디자인이 아니었으나, Crosby가 발명한 새로운 종류의 브래지어는 분명하게 가슴사이를 나누었고 복부를

덮지 않았다. Crosby는 두장의 천과 베이비 리본을 이용하였는데, 즉, 양쪽천 중심에 끈을 당겨 양 가슴을 분리시켰다.³³⁾ 그러나 이 때는 가슴과 유방의 다양한 크기와 형태에 맞춰야 할 뿐 아니라 움직임 방해하지 않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Crosby의 브래지어가 일반화되지 못하였고, 이 후 10년 이내에 가슴이 나뉨 스타일의 Crosby의 브래지어가 일반화되었다.³⁴⁾³⁵⁾

2) 1920년대

세계 제1차 대전 후에 속옷은 부피감, 무게감이 대폭 감소하였고 두 세가지 속옷이 합쳐져 한가지로 되어 간단해졌다. 여성들은 인체가 과도하게 편평해질 때까지 힙과 가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수 백년 동안 과장해 온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을 없애는 것은 여느 시대와 다르지만, 그 당시의 편평한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해 속옷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여전하였다.

패션 산업에서 큰 변화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코르셋이 거의 사라져 거들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코르셋 제조업자들은 모두 브래지어 생산을 주로 하였다.³⁶⁾ 또한, 1차 세계 대전까지 색상있는 속옷과 실크는 사치와 욕망의 상징이었으며, 모든 여성들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 때부터는 염색방법의 발전과 레이온의 발명과 함께 대중적이게 된다.

① 코르셋(거들)

1920년대에는 가볍고 인체를 구속하지 않으며 신축성 있는 짧은 코르셋이 입혀졌다. 코르셋은 인식이 안 좋아 코르셋이란 이름 대신 벨트(belt) 혹은 거들(girdle)이라 불렸으며, 코르셋이 상·하반신을 포함한 반면, 거들은 주로 하반신에 착용되었다.

거들의 형태는 이상미인 허리·힙의 곡선을 없애주기 위하여 직선형의 견고한 모양이었으며, 스타킹을 유지하기 위한 서스펜더가 달려있었다. 길이는 전시대보다 짧아져 인체에 자유를 주었다. 즉, 허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복부 혹은 힙아래까지만 지지하였다[그림 2-4].

거들의 바디스 소재는 여전히 꾸밈이 많이 쓰였으며, 브로케이드, 진(jean), 바티스트 등의 면, 견

섬유가 쓰였으며, 엘라스틱은 한 패널 정도로 넓게 대어졌다. 즉, 1920년대 중반 이후, 엘라스틱 잇는 방법이 개발되어 12"-14"까지 길어져 거들에 신축성이 커지게 되어 뒤에서 졸라매지 않는 새로운 여뎀 스타일이 나타났다. 혹으로 옆에서 여미는 거들[그림 2-4, 右]과 버스크로 여미는 거들[그림 2-4, 左]이 그 예이다. 그림을 보면, 옆판에 빗금친 엘라스틱 조각이 세로로 2"씩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엘라스틱은 부분적이지만 전시대보다는 부위가 커져 움직임의 자유를 주었으나, 한방향으로 신축성이 있는 한방향 스트레치(one way stretch)로 인해 여전히 기능은 제한되어 있었다.³⁷⁾

빠대는 상당히 유연하고 가볍고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으로 처리된 빠대와 강하고 유연하며 부러지지 않는 우븐 와이어(woven wire) 빠대가 사용되었다. 색상은 전 시대에 비해 핑크색이 늘었으며, 흰색도 많이 사용되었다.

또 다른 인기있는 스타일은 서스펜더 거들(suspender girdle)로, 후에 서스펜더 벨트로 알려졌다. 이것은 거들보다는 길이가 짧고 스타킹을 고정시키는 목적으로 매우 인기있었다.

이 시기는 또한 두 세가지 속옷이 합쳐 한가지로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코슬릿/코슬렛트(corselet/corselette)로,³⁸⁾ 이 두 용어는 같은 의복을 지칭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코슬릿으로 명하고자 한다. 코슬릿은 거들과 브래지어가 합쳐져 전체 인체에 중단되지 않는 선을 제공하였으며, 주로 코르셋보다는 유연하였으나 서스펜더로 스타킹을 고정하는 것은 같다.³⁹⁾

코슬릿은 언더벨트와 빠대의 유(有)·무(無)로, 옆에서 혹으로 여미고 옆판에 엘라스틱을 대어 신축성을 주었다. 코슬릿은 코르셋(거들)과 마찬가지로 인체를 받쳐주고, 조절해주며, 착용할 때 편안함을 주었다. [그림 2-2]를 보면 가슴 아래로 짧아졌던 코르셋이 브래지어와 합쳐져 가슴 위까지 연장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해 가슴에서 힙까지 편평한 직선형으로 제작되었다. 신축성이 필요한 곳(예:복부 하단)에는 엘라스틱을 대었으며, 빗금으로 표시되어있다.

이와 같이 여러 종류가 합쳐진 콤비네이션은 여

러 종류가 있었으며, 그 예로 코슬로 판탈론(Corslopantalon, 1923)은 슈미즈, 니커, 코르셋, 캐미솔이 하나로 합쳐졌고 서스펜더가 부착되어 있다.

② 브래지어

1920년대의 브래지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즉, 1920년대 전반기에는 보이쉬 룩을 만들기 위한 편평하고 가슴이 분리되지 않은 밴도우 브라가 있었으며, 후반기에는 여성스러움이 가미된 가르손느 룩에 맞춰 가슴 형태를 나타내고 두 가슴을 분리하기 시작한 컵 브라가 있었다.

첫째, 양쪽 가슴이 분리되지 않은 편평한 플랫 브라(flat bra, flattener)는 밴도우(bandeau)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스트레이트 룩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체의 자연스러운 선을 고려하지 않고 가슴을 원통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직선형 코르셋 위에 착용하였다. 플랫 브라의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⁴⁰⁾

가장 많이 쓰인 스타일은 흑 여밈과 조절 불가능한 어깨끈이 달려있다. 형태는 다트가 작게 들어갔지만 가슴을 누르기 위한 직선의 밴드로 주로 질기고 견고한 면직물이 쓰였다. 후에 옆선에 뼈대를 넣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앞·뒷중심에 신축성있는 부분(벋금친 부분)을 넣어 움직임이 보완하였다. 이 옆선은 처음 플랫 브라 스타일에는 없었으며, 1920년대 후반 가슴형태에 맞는 업 리프트의 브래지어 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이다[그림 2-3].⁴²⁾ 이 외에도 가슴을 누른다기 보다는 덮는 의미가 더 큰 헐렁한 스타일도 많이 쓰였으며, 신축성 있는 엘라ستيك이 결합되어 여밈없이 착용하는 스타일도 있었다.

둘째, 컵 브라(cup bra)는 1926년경 가슴, 허리, 힙이 표현된 자연스런 커브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두 가슴을 분리했기 때문에 다가올 가슴 컵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으로 현대적 개념의 컵 브래지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Kestos사(社)의 Rosalind Klin는 Crosby가 했던 것처럼(1913), 두 장의 천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다. 어깨끈은 양쪽 삼각 바스트의 윗점에서 꿰매졌다. 그곳에 신축성있는 끈이 부착되었으며 끈은 뒤

에서 교차되어 각 가슴컵 아래에서 단추로 채워졌다. 그리고 브래지어 컵의 모양을 내기 위해 가슴 아래 다트를 넣었다. 이것은 케스토스(Kestos)라 불렸으며, 1930년대에 유행하였다[그림 3-3]. 소재는 고무섬유가 삽입된 유연한 실크 엘라ستيك이나 트리코트와 같은 경편성물이 사용되었다.

컵 브라의 패턴은 가슴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주로 세조각으로 재단되고 유두점까지 다트를 넣었다. 이러한 컵 브라는 1930년대 인체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모습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이후 소재의 발전에 따라 더 적은 수의 패턴으로 인체에 밀착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3) 1930년대

1930년대에는 속옷 수가 감소하였고 더욱 가벼워졌으며, 엘라ستيك으로부터 라스텍스(lastex)⁴³⁾가 개발되어 이것으로 직조한 양방향 스트레치(two way stretch)의 개발은 코르세트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이 시기는 ‘등이 없는(backless)’과 ‘뼈대가 없는(boneless)’으로 묘사된다. 25년만에 데폴레따쥬가 다시 나타났으나 앞이 아닌 뒤였으며, 직조된 양방향 스트레치는 뼈대를 더 이상 불필요하게 하였다.

1930년대 기록할 만한 일은 인체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인체 타입에 의한 속옷이 개발된 점이다. Australia의 Berlei사(社)는 여성 인체 측정에 대한 첫 번째 과학적인 연구를 시행하여 26가지 치수를 5000명의 여성으로부터 얻었고, 여성들의 5가지 기본 인체 유형과 함께 인체에 맞는 사이즈를 제시하였다.⁴⁴⁾

이 외에도 ‘록 니트(locknit)’라 불리는 니트 레이온(knitted rayon)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유행색은 핑크색이나 복숭아색, 혹은 이러한 톤의 변화로 로즈 베이지색, 살구색과 같은 이름으로 묘사되었다. 흰색은 약간 착용되었고 검정색은 사치스런 계급에서 많이 착용하였다.

① 코르셋(=벨트, 거들)

완벽한 인체에 대한 추구는 우아한 미(美)와 스포츠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되었고 이는 코르세트

리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여성스러움의 강조로 여성들은 가슴, 허리, 힙의 가벼운 곡선을 다시 찾았으나 과거처럼 인체를 과장하여 강조하지 않았다.

거들의 형태는 허리선이 이전보다 높아져 정상적인 허리선이 되었으며, 힙의 곡선이 나타났으나 좁게 제한한 상태였다. 양방향 스트레치로 인해 신축성이 주어짐에 따라, 혹으로 옆에서 채우는 형태로부터 지퍼로 채우는 형태, 여밈이 없는 형태로 변하였으며, 서스펜더는 여전히 달려있다. 인체에 유연하게 밀착시키기 위해 겹옷 재단처럼 거들도 바이어스로 재단되었다. 즉, 옆판에는 바이어스로, 앞중심과 뒷중심은 직선으로 재단되었다.⁴⁵⁾ 이러한 양방향 스트레치 소재는 레이스도 스트레치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거들 디자인에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였다[그림 3-3, 左].

거들 전체가 신축성있는 실로 직조되어 뼈대와 여밈이 불필요한 것은 '롤 온(roll-on; 1932)'이라 불렀고, 지퍼로 잠그는 것은 '스텝-인(step-in, 옆길이 14"정도)'이라 불렀다.⁴⁶⁾ 사실, 지퍼는 19세기 말부터 특허가 있었으나 잘 열리고 서투른 여밈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1933년 '라이트닝(lightening)' 지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퍼달린 거들인 스텝 인이 인기를 얻었고,⁴⁷⁾ 이러한 스타일은 혹 여밈 거들을 대체하여 갔다.⁴⁸⁾

롤 온은 씨쿨라 니팅 머신으로 만들어졌으며, 양방향 스트레치로 인해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되었으며 과거보다 더욱 부드러운 윤곽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인체를 조절하고 밑단의 올라감 없는 완벽한 움직임의 자유와 엄청난 편안함을 주었다[그림 3-3].

거들의 소재는 라스텍스(고무섬유), 레이온(셀룰로오스 섬유)같은 인조 섬유가 많이 쓰였지만, 천연 섬유인 견섬유로 제직된 브로케이드, 샤무즈, 실크 저지, 새틴 드릴등도 계속 사용되었다. 더운 여름에는 가벼우면서 강한 보일 직물이 쓰였다.

한편, 브래지어와 코르셋(거들)이 합쳐진 코슬릿은 올 인 원(all-in-one)이라고도 불렀으며, 겹옷의 실루엣에 맞추어 주로 등이 깊게 파인 스타일이 많았다. 1934년 나온 뼈대, 여밈없는 양방향 스트레치 코슬릿은 인체에 부드럽게 밀착되었고 유연하

고 날씬하게 다듬었다. 이것은 인체를 강력하게 받쳐주면서 움직임의 자유를 주었다[그림 3-2]. 코르셋리의 종류는 여전히 다양했고 전통적인 스타일도 여전히 인기있었다.

② 브래지어

1920년대의 편평한 가슴선에 비해 1930년대의 특징은 가슴선이 살아난 점이다. 192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가슴선을 살리기 위해, 1930년대는 컵 브래지어를 주로 착용하였으며 이에 관한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다. 즉, 브래지어 컵을 만들기 위해 옆솔기에 뼈대를 넣었고 컵에 패드를 대는 것이 새로운 우선권이였다.⁴⁹⁾ 따라서, 이 시기는 컵 가슴, 윤곽이 뚜렷한 가슴, 위로 들어 올려진 가슴, 강조된 가슴선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묘사에서 나타나는 개념은 브래지어가 주었던 "가슴을 받쳐줌(support)"으로, 광고는 모두 가슴을 받쳐 주어 가슴의 형태를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1930년대에 완성된 현대의 브래지어는 유방이 가슴과 팔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형태와 위치가 이동되어 결국에는 처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어떤 크기의 유방이라도 쳐지거나 울리지 않고 부드러운 주머니 속에 완벽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었다.⁵⁰⁾

이 당시의 브래지어 치수는 주로 대, 중, 소의 컵(full, average, small cup)으로 묘사되었다. 아마 Warner사(社)와 다른 회사들은 가슴의 깊이를 조정하기 위해 신축성 있는 컵에 의존하려 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S.H.Camp and Company는 가슴의 크기와 늘어진 정도를 고려하여 알파벳 A~D까지로 나누었다. 이후, 1935년 Warner사(社)의 "가슴(bust)과 유방(breast)은 다른 치수이며, 브래지어는 두 치수를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개혁에는 오늘날과 같이 A,B,C,D의 네 개의 컵 사이즈가 있었으나[그림 4-4]⁵¹⁾ 채택되어 실행되는데는 시간이 걸렸다. 브래지어 컵에는 쉽게 구김이 가지 않고 울이 풀리지 않는 니트 레이온인 '스와미(Swami)'가 널리 사용되었다.⁵²⁾

최초의 업리프트 브라(1927)는 브래지어 컵 없이 앞중심에 개터를 넣어 천을 주머니 형으로 만들

어 가슴을 받쳐주었다. 이후, 1930년대 업 리프트 브라는 브래지어 컵에 패드를 대고 가슴을 들어 올려주어 더 구조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형태였다.⁵³⁾ [그림 3-3]의 케스토스 브라는 1920년대 후반에 발명되어 30년대에 대유행하였으며, 등이 없는 스타일의 브래지어도 인기있었다.

1931년, Kapinas는 브래지어에 일반적이었던 미리 모양지어진 컵을 만드는 것 대신에, 가슴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양방향 스트레치 소재의 재단과 가슴의 장력(tension)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신축성으로 인해 컵솔기 없이도 가슴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솔기 있는 컵보다 부드러운 인체의 곡선을 나타내었다.

브래지어는 점점 짧아지고 양쪽 가슴으로 분리되어 가슴을 받쳐 주도록 디자인되었고, 1937년 ‘브라(bra)’로 알려졌다. 1939년, 브래지어의 역사 중 베스트 셀러가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 컵이 깊었고 컵의 모양을 안정시키는 기술로 씨클라 탑 스티치를 하여 컵 형태를 매우 날카롭고 뾰족하게 만들었다(때때로 끝은 보강되기도 했다). 이것은 3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50년대에 매우 유행하였다[그림 5-3].

브래지어의 주소재는 새틴, 쉬폰의 견직물, 라스텍스와 혼방된 레이스, 고무섬유가 삽입된 네트, 바티스트 같은 마직물이 쓰였으며, 크레이프 직물도 사용되었다.⁵⁴⁾

4) 1940년대

전쟁시 속옷은 자세, 건강, 활동, 자세 보완 등이 중요한 기능이었다. 여성 속옷과 관련된 전쟁 기간 동안의 규제는 디자인과 소재 뿐 아니라 모든 트리밍, 자수, 레이스와 다른 유사한 장식을 금지하였다. 란제리는 단순하게 재단되었고, 코슬릿, 팬티 거들 같이 여러 기능이 합쳐진 올 인 원으로 대체되었으며, 실용적이면서 기능적이었다.

전쟁시 직물 생산량의 대부분은 모든 타입의 낙하산 제조와 약간의 의복제작에 사용되었다.⁵⁵⁾ 란제리 공장도 강철, 면, 고무와 같은 속옷의 주원료들이 헬멧, 턱끈, 낙하산, 멜빵 같은 군사용품으로 사용되어, 대체물로 속옷을 만들도록 노력하였다.

즉, 값싼 소재로 대체하거나, 고무를 제거하여 생긴 맞음새 문제를 실험적인 합성고무 “네오프렌(Neoprene)”이나 “Buna S”와 같은 대체물로 극복하려 하였다.⁵⁶⁾ 판매 스태프들은 고무 제거로 인한 맞음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교육받았으며 편안한 형을 위해 미세한 부분까지 작업하였다.

소재를 보면, 1938년 발명된 나일론(Nylon)⁵⁷⁾은 직물업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나일론이 처음 발명되었을 당시는 전쟁이 나라를 강타했을 때로, 처음 5년간은 전쟁시 생필품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제한받긴 하였으나, 속옷 마켓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스타킹과 타이즈의 맞음새를 개혁하였다.

① 코르셋

코르셋은 전 시대의 스타일이 유지되었지만 장식적인 측면이 배제되었다.

전쟁동안 코르셋의 주원료들이 군사용품으로 사용되어 다른 재료를 이용해 만든 코르셋은 전쟁 전보다 질이 떨어졌다. 값싼 포플린이나 무명의 면직물이 사용되었고, 강철(steel)대신 섬유 뼈대가 사용되었으며, 고무섬유인 엘라스틱도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여성들은 실용정책하의 재료부족으로 인해 롤온(roll on) 거들이 원하는 인체를 만드는데 부적절하며, 어느 곳에서도 좋은 브래지어와 코르셋을 살 수 없다고 불평하였다. 그나마 롤 온은 쉽게 구할 수도 없었으며, 스타킹이 없이는 밑단이 말려 올라갔다.⁵⁸⁾

코르셋은 주로 전통적인 코르셋 스타일에 약간의 뼈대(섬유뼈대 혹은 나선형 뼈대)를 대었다. 버스크 여밈의 앞에서 줄라매는 코르셋은 허리부위에 약간의 엘라스틱을 대었으며, 언더벨트를 덴 스타일도 있었다. [그림 4-2]는 올 인 원인 지퍼달린 코슬릿으로 완전한 인체형태를 보여주며 서스펜더가 달려있다.

코르셋은 또한 전쟁시 일반화된 바지 안에 입을 수 있도록 길지 않아야 했다. 바지 안에 입으므로 스타킹을 고정시키는 서스펜더가 없는 스타일이

나왔으며, 여성들은 스타킹의 부족으로 양말을 신고 외출하여야 했다. 바지 형태의 팬티 거들(pantie-girdle)은 전쟁시의 고무제한이 사라지고 바지가 일반화 된 2차 세계대전 후에 유행하였다.

② 브래지어

제조업자들은 의복을 최소한의 기본적인 스타일로 단순화시켰다. 브래지어 역시 단순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이 유지되었으며, 물자 부족으로 인해 다른 재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일 수 없었으며, “의무적인 브래지어(Dutiful Brassieres)”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나일론은 브래지어 소재에서 사용되지 않고 밧줄, 모기망, 낙하산 덮개를 만들었다. 엘라스틱은 브래지어 끈에는 2-2.5“, 밴도우에는 6“, 롱브래지어에는 8“정도로 사용이 제한되었고, 합성고무와 같은 대체물을 이용하였다. 엘라스틱의 부족으로 인한 맞음새 문제를 위해, 전시대에 주장된 가슴 둘레와 유방 볼륨의 차이뿐 아니라 서로 다른 스타일의 브래지어와 형태의 세밀함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훅(hook)의 금속(metal)사용도 제한되어, 브래지어 밴드 끝은 사다리형의 고리(여림)으로 만들어 여뻤다. 열대나무에서 나온 실크섬유인 케이폭(kapok)은 브래지어 패드의 고무를 대체하였으나 이 또한 공급이 부족해져 유액을 분비하는 식물의 보풀(milkweed fuzz)로 보충하였다.⁵⁹⁾

브래지어도 코르셋과 마찬가지로 인체를 완만하게 나타내는 형태가 주로 쓰였다. [그림 4-3]은 실용 의복 기간동안 착용된 전형적인 실용 브래지어이다. 이 시기의 소재는 주로 브로케나 튼튼한 무명이 쓰였으며, 이 외에도 전 시대의 케스토스 스타일이 여전히 착용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전쟁시 다소 공격적인 미사일 형태의 윈더 브라가 나타났는데 5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스타일은 지속되었으며, 군사 용어로 이렇게 뾰족한 40년대 브래지어 실루엣을 토페도(Torpedo)라 했다. 또한, 이 시기의 브래지어는 엘라스틱의 부족으로 인한 맞음새 문제를 위해, 전시대에 주장된 가슴 둘레와 유방 볼륨의 차이뿐 아니

라 서로 다른 스타일의 브래지어와 형태의 세밀함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림 4-4]는 모두 같은 사이즈지만 A-D 컵에 따른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으며, 광고는 사이즈와 라벨 안에 새겨진 글자에 따라 착용하면 맞음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⁶⁰⁾

5) 1950년대(1947년-1959년)

파운데이션 웨어는 이 시기에 붐을 이루었고 특히, 1948년에서 1958년 사이의 판매는 두배로 급성장하였다. 전쟁 후 속옷 산업은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 소비자의 욕구 파악, 디스플레이, 미적 요소, 판매 전략 등은 결정적이었으며, 의복은 각 사이즈에서 다양한 가격대로 제시되어 여성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우편주문은 속옷 산업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이 외에도 속옷이 윈도우에 전시될 뿐 아니라 패션쇼, 라디오, TV 광고, 영화와 같은 공적인 장소에 등장했다.

소재를 살펴보면, 인조섬유와 천연섬유가 교직되어 인기를 끌었으며, 나일론⁶¹⁾, 울론, 테크론 등의 가볍고 질기고 손질하기 쉬운 직물이 유행하였다. 또한, 경편니팅기계의 개발로 빠른 속도로 길게 엘라스틱 소재를 제직해내어, 이로 인해 양방향 스트레치 거들의 정착과 함께 다양한 스트레치 의복을 초래하였다.⁶²⁾ 엘라스틱 나일론 네트는 후에 ‘파워 네트’로 알려졌으며, 버스크, 배대, 줄라매는 여미를 불필요하게 하여 새로운 파운데이션 웨어를 주도하였다.⁶³⁾ 색상은 검정색, 흰색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파이어 블루, 장미색, 청록색, 주홍색, 복숭아색 등 패셔너블한 색상과 패턴이 나타났다.

① 코르셋

코르셋은 전시대의 버스크, 강철, 줄라매는 코르셋의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일반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가볍고 유연한 소재의 ‘파운데이션 웨어’로 파운데이션 혹은 파운데이션 가먼트로 불렸다.⁶⁴⁾ 수많은 기능적인 코르셋(거들)은 인체의 곡선을 조절하고 외곽선을 다듬었으며 인체를 조각적으로 변형시켰다.

맞음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1956년 나타

났다. 이 시기에는 힙 라인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것은 허리선과 함께 변화하였는데, 브래지어에 컵 사이즈가 나타난 것과 유사한 현상이었다. 따라서 ‘힙 스프링(hip spring)’이란 용어가 코르셋에 사용되었고, 맞음새를 위한 가이드가 가격표와 의복에 제시되었다. 힙 스프링은 허리와 힙 사이의 대략적 치수 차이였는데 예를 들어, 허리가 26“이고, 힙이 37”면, 힙 스프링은 11“였다.⁶⁵⁾

이 시기의 코르셋의 형태는 아우워 클래스형의 잘록한 허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허리부분만 대는 짧은 형태(와스피)⁶⁶⁾와 하이 웨이스트 형태를 사용하였다. 또한, 뉴 룩의 유행으로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코르셋 밑단에 프릴이나 레이스가 종종 달렸다. 어떠한 형태이든 허리선은 자연스러운 인체의 곡선을 따른다기 보다는 예리하게 들어가 조여졌다. 이를 위해서 허리선에서 재단되어 테이프를 대어 조이거나 와스피로 졸라매었다. 서스펜더는 여전히 코르셋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서스펜더 거들 역시 프릴 달린 형태가 많았다.⁶⁷⁾

빠대는 여전히 이용되었으나 유연하고 가볍고 이전보다 강도가 약했다.

고래수염(baleen)으로 만든 고래뼈 조각(strip)은 1950년대 말에도 여전히 사용되었으나, 결국 칠면조 깃털, 나일론, 다른 플라스틱으로 만든 뼈대가 모든 다른 소재들을 대체하였다.⁶⁸⁾ 고품질의 강철 덮개는 견면이나 벨벳으로 안감을 대어 완충 작용을 하게 하여, 피부 바로 위에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퍼달린 거들인 스텝-인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착용하였으며, 하이 웨이스트와 예리하게 들어간 허리선은 허리를 보다 날씬하게 보이게 하였다[그림 5-4]. (그림 5-4)의 하단에 있는 작은 그림을 보면 잘록한 허리선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선을 절개하고 테이프를 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신축성 있는 나일론 네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자유를 주는 풀 온(pull on) 거들이 양방향 스트레치 룰 온 거들을 대신하였으며, 나일론은 다양하게 혼방되어 코르셋트리에 풍부한 효과와 가벼움을 주었다.

스타일은 지퍼여밈 거들, 혹여밈 거들, 졸라매는 거들 등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했으며, 중년의 많은

여성들은 새로운 코르셋트리를 알고 있을지라도, 변화를 위한 바람을 갖고 있지 않아 전통적인 스타일을 선호하였다.⁶⁹⁾

코슬릿은 원추형의 가슴, 잘록하게 조인 허리, 편평한 복부, 둥근 힙의 아우워 클래스 실루엣을 나타내기 위하여, 원추형의 브래지어 컵을 대고, 프린세스 라인을 이용하여 신축성 없는 나일론 테피터로 앞판을 눌러 주고 신축성 있는 파워 네트를 옆판에 넣어 허리와 힙의 곡선을 나타내었다[그림 5-2]. 이와 같은 스타일은 주로 직선적인 쉬스 드레스 아래 착용하였으며, 가장 인기있었다.

이처럼 구조적인 스타일의 코르셋(거들)과 코슬릿이 생산되다가, 1950년대 후반 시작된 젊은이의 문화, 댄스열광 등으로 Meerson Fairbell에 의해 간단하고 유연하며 가벼운 엘라스틱 네트 거들이 생산되었으며(1957),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비비드 색상의 1960년대 스타일 거들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⁷⁰⁾

② 브래지어

큰 가슴에 대한 인기로, 전쟁 후에 속옷의 종류 중 가장 활발하게 판매된 것은 브래지어였다. 디자이너들은 인공적으로 가슴골을 강조하고 가슴을 위로 밀어올리기에 바빴고, 브래지어는 가슴을 더 크게, 바깥으로 내밀도록 유도되었다. 그들은 폼 고무(foam rubber)혹은 플라스틱 삽입물과 와딩(wadding: 솜, 패딩에 쓰던 재료)의 유방 패드로 브래지어를 양식화하였고,⁷¹⁾강철 뼈대나 반유연한 철사를 컵 가장자리에 넣어 가슴을 높고 확실하게 잡아주었다. 또한, 브래지어 컵의 뽀족함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선형 혹은 씨쿨러 스티치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높고 뽀족한 가슴의 과장된 형태는 1930년대 Mae West에서 기원하여 당시 Scarlett O'Hara에서 전성을 이루었다. 두 시기의 가슴 강조는 영화에 의해 시작되어, 패션의 특징이 되었다.

1950년대의 가장 인기있는 형태는 위와 같은 높고 뽀족한 가슴을 만드는 윈더브라였다. ‘스웨터걸 브라(Sweater girl bra)’ 역시 유사한 형태로 영화 배우 Jane Russell의 캔틸레버 브라(cantilever bra)에 의해 영감 받았다. 이러한 브래지어들은 날

카로운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뾰뾰하게 만들어졌고 씨컬러 스티치가 널리 이용되었다. 이상적인 목표는 '두 개의 원추형'으로, 유럽에선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아프리카 조각에 나타나던 것이었다. 이 브래지어 컵에는 와이어를 넣어 가슴을 형태를 만들어 받쳐주었다[그림5-3].

가슴을 크게 보이기 위한 아주 흥미로운 발명은 빨대를 이용하여 가슴을 부풀리게 할 수 있는 브라(inflatable bra)⁷²⁾였으며, 가슴을 밀어 올리는 최초의 푸쉬 업(Push up) 브래지어는 1948년 미국의 Fredrick's of Hollywood사(社)에 의해 발명되었다.

였으므로 유연한 와이어가 사용되었고, 나선형의 와이어는 언더 와이어에, 무거운 와이어는 가슴을 분리시키는 위치에 쓰였다.⁷³⁾

소재는 나일론 마퀴젯, 나일론 파워 넷트, 아크릴 섬유인 올론(Orlon acrylic), 폴리에스테르 섬유인 데이크론(Dacron polyester), 견을 다른 섬유와 혼방한(실크 코튼 산통, 넷트 새틴, 태피터 새틴)등이 사용되었다.

<표 1> 이상미에 따른 속옷의 구성방법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사회문화적 배경	Poiret디자인, 여성해방운동 러시아발레단 오리엔탈리즘 아르데코	새로운 도덕의 자유, 해방, 젊음 경제적, 정신적 독립 추구	경제적 불황(실업) →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조장됨	2차 세계대전 → 여성의 역할은 사회적역할로 전환	사회적,가정적 가치의 보수적 회귀 → 여성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함
이상미 /겉옷	풍만한 가슴 다소가는허리 좁은힙의 H실루엣	가슴, 허리, 힙의 곡선이 없는 스트레이트 박스 실루엣	가슴,허리, 힙의 곡선이 완벽하게 표현된 슬림 앤 봉 실루엣	넓은 어깨의 짧은 박스실루엣 (완만한 형태)	큰가슴, 잘록한 허리, 둥근힙의 우아한 아우워 글래스 실루엣
코르셋 (거들)	· 긴원통형 · 앞에서 여미고 뒤에서 줄라맴 · 짧은 엘라스틱, 뼈대	· 직선형 · 엘라스틱을 길게 대어 혹여뭍 등장 · 가볍고 유연한 뼈대	· 양방향 스트레치 직물 →여뭍불필요 →뼈대불필요 →인체의곡선완벽히 표현	· 전쟁으로 대체소재사용, 전시대스타일 유지	· 와스피, 하이웨이스트 거들들로 허리조임 · 인조섬유로 인한 가벼움
브래지어	· 부분적 엘라스틱을 댄 가슴 덮는형	· 직선형 밴드 · 혹여뭍	· 업 리프트 · 브라칩 발달 인식	· 전쟁으로 대체소재사용, 전시대스타일 유지	· 푸쉬업 브라 와이어, 패딩, 씨컬러 스티치로 가슴 확대

전쟁 동안 크롭으로 도금된 철사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전쟁 후에 와이어 브래지어는 가슴을 받쳐주기 위해 필수적으로 되어갔다. 와이어 브래지어는 처음에는 딱딱하고 불편했지만, 몇 년 이내에 가벼워지고 잘 싸여져 착용하기에 편안하도록 발전되었다. 와이어의 종류는 유연한 나선형, 편평한 형, 둥근 형이 있었으며, 처음에는 가슴이 큰 사람들 대상이었으나 곧 위로 밀고 받쳐주도록 가슴이 작은 사람들용도 개발되었으며, 유방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개선시켜 주었다. 오버 와이어는 유방의 윗부분을 감싸주고 가슴골을 안정시켜 주

IV. 결 론

본 연구는 20세기 전기를 십년 단위별로 사회문화적 배경과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고,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한 인체의 이상미, 겉옷의 이상미, 속옷의 구성요소(형태, 색상, 소재, 패턴 등) 및 기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한 이론적 연구를 하였고, 사진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속옷의 구성요소와 기법을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910년대는 Poiret의 디자인, 여성 해방 운동,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 아르데코 등의 영향으로 이상미는 H형으로 변화하였다. 즉, 풍만한 가슴, 다소 가는 허리, 좁은 힙을 만들기 위해 겉옷은 부피감 없는 H형의 호블실루엣으로 하체를 구속하였다. 속옷은 가슴 아래에서 무릎까지 길고 힙을 강하게 조인 원통형의 코르셋과 가슴을 풍만하게 보이기 위한 브래지어나 인공 가슴을 착용하였다. 소재는 면, 실크류에 강한 뼈대를 대었고, 움직임을 위해 부분적으로 짧은 엘라스틱(2")을 삽입하였다.

1920년대는 전쟁이 끝난 후 새로운 도덕의 자유, 해방, 젊음을 누렸던 플래퍼들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가슴·허리·힙의 곡선이 없는 보이쉬한 형태를 취하였다. 겉옷은 다투없이 직선으로 재단되어 스트레이트 박스 실루엣을 만들었으며, 속옷은 가슴에서 힙까지 직선형인 코슬릿을 착용하고 직선형의 캐미 니커를 착용하였다. 소재는 엘라스틱을 길게 잇는 방법이 개발되어 신축성 있는 부위가 커져 끈으로 졸라매던 여밈이 혹여밈으로 대체되어 갔으나 아직 한방향 스트레치로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었다.

1930년대는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실업으로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조성되었으며, 여성들은 가슴·허리·힙의 곡선이 나타난 완벽한 인체를 추구하였다. 슬림 앤 롱 실루엣의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하기 위해, 겉옷·속옷은 바이어스나 고어로 재단되었고 유연한 소재는 인체선을 따라 흘러내렸다. 직조된 양방향 스트레치 소재의 코르셋리는 뼈대, 솔기, 여밈없이 인체를 받쳐주고 형태를 다듬으며 조절하였다.

1940년대는 제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여성의 역할은 사회적 역할로 전환되었다. 이상미는 여성적인 인체의 곡선이 사라진 짧은 스트레이트 박스형으로, 겉옷·속옷은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완만한 형태의 단순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이었으며 소재도 값싼 소재로 대체되었다.

1950년대는 전쟁이 끝나고 사회적·가정적 가치가 보수적으로 회귀하여 여성들은 다시 전통적인 성역할을 해야 하는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조성되었다. 이상미는 둥근 어깨, 원추형의 큰 가슴, 조인

허리, 둥근 힙의 성숙하고 우아한 여성이었다. 겉옷은 둥근 어깨 패드를 대고 인체에 맞게 재단한 상의와 넓은 플레어 스커트로 아우워 글래스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속옷은 탑스티치로 원추형을 만든 브래지어로 가슴을 부풀리고 밖으로 내밀었으며, 가늘게 허리를 조이는 코르셋과 풍성한 페티코트를 착용하였다. 또한, 나일론과 같은 합성들은 다양하게 혼방되었고, 저렴함과 가벼움으로 복식을 개혁하였다.

이상과 같이 20세기 전기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한 속옷의 구성 요소 및 기법을 살펴보면, 코르셋리는 여러 다른 형태와 이름으로 가슴, 허리, 힙을 구조하며 이상미를 만들어왔다. 또한, 겉옷과 조화되어 이상미를 표현하여 왔으며, 코르셋리는 과거에는 신축이 제대로 안되는 소재와 뼈대로 인체를 압박하여 이상미를 나타내었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의복은 거부되었으며, 소재의 발달에 따라 뼈대가 사라지고 신축성 있는 소재로 인체 움직임에 자유를 주면서 이상미를 나타내게 되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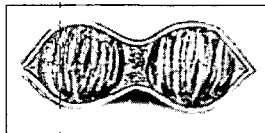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여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상미에 속옷은 겉옷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물자료가 아닌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미흡하리라 여기며, 20세기 후반 속옷이 겉옷으로 가지화되어 속옷의 구성요소와 기법이 패션창출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속옷 연구에 관한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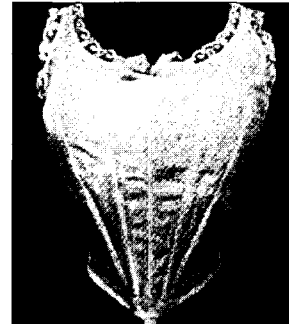
[그림1-1] 1910년대
「Women of fashion」,
p.30.



[그림1-2] 신축성이 필요한
곳에 덴
엘라스타, 「Cors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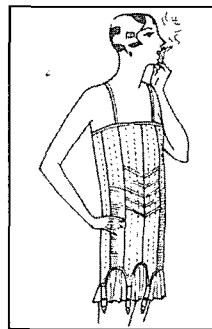
[그림1-3] 인공 가슴
「Cors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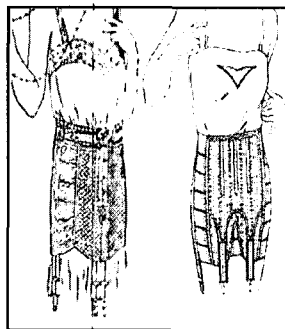
[그림1-4] 1910년대 브래지어,
「Foundations of
Fashion」,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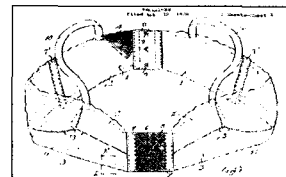
[그림2-1] 1920년대,
「Women of Fashion」,
p.72.



[그림 2-2] 직선형
코슬릿, 「Dress &
Undress」, p.128.



[그림2-3] 폭어임 거들,
엘라스타겔판, 「Foundations of
Fashion」, pp.3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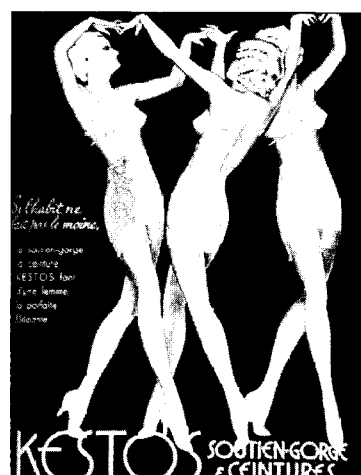
[그림2-4] 플랫 브라 도해
「Unmentionable」



[그림3-1] 1930년대
「Fashion」, p.139.



[그림3-2] 양방향스트레치
코슬릿, 「The F.I.」, p.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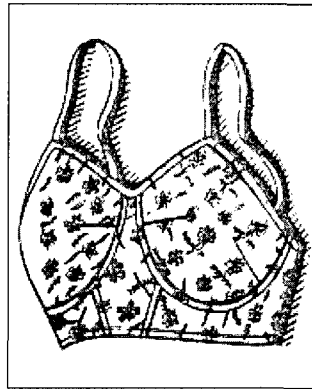
[그림3-3] 케스토스 브라, 양방향
스트레치 거들, 「1000Dessous」, p.443.



[그림4-1] 1940년대, 「C&F」, p.253.



[그림4-2] 코슬릿, 「Decades of Beauty」, p.112



[그림4-3] 실용 브래지어, 「F.F.」, 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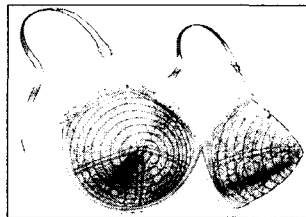
[그림4-4] A-D사이즈 컵, 「Uplift」, p.102.



[그림5-1] 1950년대, 「F.I.」, p154.



[그림5-2] 아우워 글래스형 코슬릿 「1000 Dessous」, p.458.



[그림5-3] 싸클라스티치 브라, 「S & S」, pp.118-119.



[그림 5-4] 지퍼달린 거들 「1000 Dessous」, p.459.

참고문헌

- 1) Marianne Thesander(1997). *The feminine ideal*, (London: Reaktion Books Ltd), pp.8-11.
- 2) Donna R. Danielson(1989). The changing figure ideal in fashion illustration, *C.T.R.J.*, #1, p. 36.
- 3) 본 연구는 20세기의 범위를 아르누보(1890-1908)가 끝나고 아르데코(1908-1930)와 새로운 실루엣이 시작된 1908년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아르누보의 S자형 실루엣이 1890년부터 1910년에 걸쳐 있어 19세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아르데코의 직선적인 H형 실루엣이 1908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정홍숙(1994).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139.
- 4) Koichi Tsukamoto에 따르면, 어느 시기든 속옷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것으로 슈프트, 셔츠, 드로워즈, 니커즈 등 체온 유지와 보호, 위생적인 목적으로 쓰인다. 둘째, 인체의 형태를 교정(reform)하는 것으로 바디 셰이퍼(body shapers)라 부른다. 이것은 코르세트리와 같은 의미로, 브래지어, 밴도우, 코르셋, 파운데이션 등 어떤 효과를 위해 인체를 재조정, 축소, 확대시킨다. 셋째, 어떤 장치를 이용하여 인체를 변형(transform)시키는 것으로 정상적인 인체와 연관이 없다. 파딩게일, 후프, 비슬, 패딩 등 인체의 윤곽을 왜곡시켜 강조 할 뿐만 아니라 과시와 지위 같은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넷째, 심미적인 감각이

- 있는 것으로, 매우 장식적이며 레이스와 프릴, 리본으로 장식한 티 가운, 슬립, 캐미솔, 페티코트 등이 이에 속한다. Koichi Tsukamoto(1982). *The undercover story*, New York: FIT, p. 6.
- 5) James Laver(1995). *Costume & fashion*, New York: Thames & Hudson, p. 224.
 - 6) R. Broby-Johansen(1968). *Body & clothes*, New York: Reinhold Book, p. 221.
 - 7) Marianne Thesander. *op. cit.*, p. 109.
 - 8) Jane Mulva(1988). *Vogue fashion : History of 20th century*. London: Viking, p. 13.
 - 9) Elizabeth Rouse. *op. cit.*, p. 155.
 - 10) Janet Arnold(1972). *Patterns of fashion 2*, New York: Drama Book, p. 17.
 - 11) Marianne Thesander. *op. cit.*, p. 146.
 - 12) Elizabeth Ewing. *op. cit.*, pp. 162-165.
 - 13) Danna R. Danielson. *op. cit.*, p. 38.
 - 14) Elizabeth Rouse. *op. cit.*, pp. 171-175.
 - 15) Catherine Bardey. *op. cit.*, p. 21.
 - 16) 조규화(1995).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p. 91.
 - 17) 라사라교육개발원(1991). *복식사전*. 서울: 도서출판 라사라, p. 219.
 - 18) Catherine Bardey. *op. cit.*, pp. 21-23.
 - 19) C. Willett and P. Cunnington(1992). *The history of underclothe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pp. 14-18.
 - 20) Béatrice Fontanel. *op. cit.*, p. 88.
 - 21) Robert Doyle(1997). *Waisted efforts*, Toronto: Sartorial Press Publications, p. 201.
 - 22) Béatrice Fontanel. *op. cit.*, pp. 85-87.
 - 23)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op. cit.*, p. 227.
 - 24) 버스크(busk): 가슴을 버티는 살대(고래뼈대 또는 강철로 만듦).
 - 25) Marianne Thesander. *op. cit.*, p. 109.
 - 26)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op. cit.*, p. 227.
 - 27) Robert Doyle. *op. cit.*, p. 200.
 - 28) Christopher Page. *op. cit.*, p. 29.
 - 29) Béatrice Fontanel. *op. cit.*, pp. 92-93.
 - 30)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op. cit.*, p. 229.
 - 31) 바스트 바디스(bust bodice): 19세기 후반 가슴을 덮던 것으로, 어깨끈이 달리고 하나의 가슴(mono bosom) 효과를 주기 위해 앞판과 옆판에 가볍게 뼈대가 대어져 있다.
 - 32) Elizabeth Ewing. *op. cit.*, p. 115.
 - 33) Kate Mulvey & Melisa Richard. *op. cit.*, p. 59.
 - 34) Jane Farrell-Beck and colleen Gau. *op. cit.*, p. 33.
 - 35) Elizabeth Ewing. *op. cit.*, p. 115.
 - 36) Jane Farrell-Beck & Colleen Gau. *op. cit.*, p. 34.
 - 37) Christopher Page. *op. cit.*, p. 42.
 - 38)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op. cit.*, p. 129.
 - 39) Marianne Thesander. *op. cit.*, p. 113.
 - 40) Robert Doyle. *op. cit.*, p. 201.
 - 41) Elizabeth Ewing. *op. cit.*, p. 127.
 - 42) Jane Farrell-Beck & Colleen Gau. *op. cit.*, p. 41.
 - 43) 라스텍스(Lastex): 이 신축성있는 실은 상당한 길이와 넓이로 직조되거나 짜여졌고, 양방향 스트레치를 도입하게 하여 코르세트리에서 더 이상 혹, 탭, 줄라매는 것이 불필요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맞추기 위한 수많은 패턴 조각도 불필요하게 하였다. 이것은 인체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인체 곡선의 우아함을 표현해 주었다.
 - 44) Elizabeth Ewing. *op. cit.*, pp. 136-137.
 - 45) Farid Chenoune & Farid Chenoline. *op. cit.*, p. 64.
 - 46)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op. cit.*, p. 245.
 - 47) Elizabeth Ewing. *op. cit.*, p. 151.
 - 48) Kate Mulvey & Melissa Richard. *op. cit.*, p. 96.
 - 49) K. Bressler & K. Newman & G. Proctor. *op. cit.*, p. 45.
 - 50) Anne Hollander(저), 채금식(역). *op. cit.*, p. 196.
 - 51) Elizabeth Ewing. *op. cit.*, p. 149.
 - 52) Christopher Page. *op. cit.*, p. 42.
 - 53) Elain Benson and John Esten. *op. cit.*, p. 49.
 - 54) K. Bressler & K. Newman & G. Proctor. *op. cit.*, p. 45.
 - 55) Christopher Page. *op. cit.*, p. 49.
 - 56) Jane Ferrell-Beck and Colleen Gau. *op. cit.*, p. 92.
 - 57) 나일론은 내구력 있고, 탄성이 높으며, 가볍고, 세탁이 용이하고, 빨리 마르며, 구김이 잘 가지 않는 특성으로 의복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 58) Doreen Caldwell. *op. cit.*, p. 63.
 - 59) Jane Ferrell-Beck and Colleen Gau. *op. cit.*, p. 92.
 - 60) Jane Farrell Beck & Colleen Gau. *op. cit.*, p. 102.
 - 61) 나일론은 이 시기에 더욱 발전되어 다양한 무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물 혹은 직물로 짜여져 신축성이 있거나 없는 새로운 나일론의 공급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견고한 재질로 인체를 조절하기 위해 쓰이던 이전의 면직물과 견직물은 가벼운 무게의 나일론 혼방(나일론 태피터, 나일론 보일, 나일론 마쿠셋, 보일 레이스, 나일론 시어서커, 나일론 레이스)으로 대체되었다. 이 소재들은 천연소재만큼 강하였지만 대단히 가벼웠고 다림질이 필요없었다.
 - 62) Elizabeth Ewing. *op. cit.*, pp. 160-161.
 - 63) K. Bressler & K. Newman & G. Proctor. *op. cit.*, p. 18.
 - 64) Elizabeth Ewing. *op. cit.*, p. 158.
 - 65) Christopher Page. *op. cit.*, p. 54.

- 66) 와스피(waspie): 5-6"길이의 예리하게 허리가 들어간 짧은 코르셋으로 고무섬유를 삽입한 면 엘라스틱에 강철 뼈대를 넣었고 때때로 뒤에서 허리를 졸라매었다. 허리부위에만 착용하는 코르셋인 "Magic Lastex Waist Band"는 착용 즉시 허리를 4"나 감소시켜줄 것이라고 광고하였다(1956, Vogue).
- 67) Schnumberger, Lynn(1991). *let there be clothes*. New York: Workman, p. 371.
- 68) Béatrice Fontanel. *op. cit.*, pp. 124-125.
- 69) Farid Chenoune. *op. cit.*, p. 100.
- 70) K. Bressler & K. Newman & G. Proctor. *op. cit.*, p. 74.
- 71) Catherine Bardey. *op. cit.*, p. 128.
- 72) *Ibid.*, pp. 121-122.
- 73) Jane Ferrell-Beck and Colleen Gau. *op. cit.*, pp. 100-105. 126.